

Energy Line Weekly

미국 전기요금 상승추세 이어지고 있음

SK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나민식

minsik@sk.com
3773-9503

전기요금이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

미국 내 60 여개 유틸리티 회사가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Xcel Energy 는 25 년 +9.6%, 26 년 +3.6% 전기요금 인상안을 미네소타 공공요금위원회(PUC)에 제출했으며, 시민단체는 인상 요청에 대해 “지나치다” 라는 반발을 받고 있음. 그러나 유틸리티 업체측은 AI 데이터센터로 인한 수요증가, 전력기기 가격상승으로 인한 투자 증가를 이유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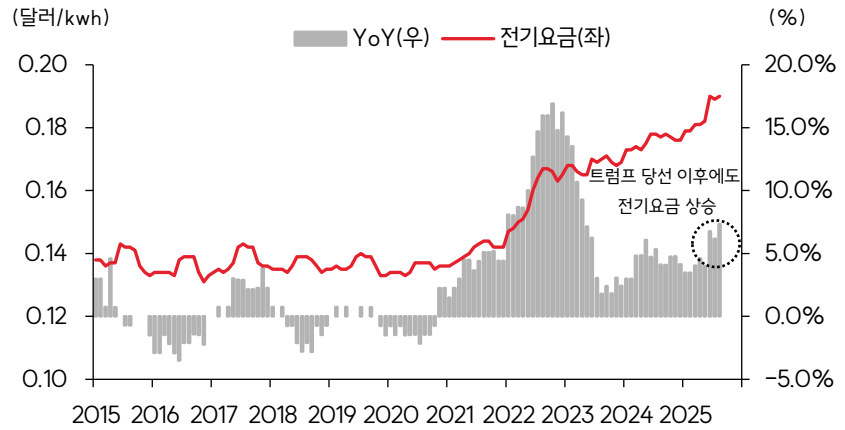
미국의 규제 유틸리티(regulated utility)는 전기요금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한다.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대신에 규제기관인 공공요금위원회(PUC, Public Utility Commission)가 인정한 자산(rate base)에 적정 ROE(보통 8~10%, 금리에 따라 변동)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유틸리티 업체들의 CAPEX 가 증가할수록 요금인상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상승요인을 재생에너지로 돌리고 있음. 에너지 지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는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주가 기록적인 전기요금 상승을 겪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관련된 근거로는 태양광,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투자비용,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이 전력 비용을 구조적으로 인상시킨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음. 당선이후에는 에너지 경제성을 강조하며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을 증가시키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LNG 수출터미널 건설 재개, 미국내 신규 원전건설 발표, SMR 인허가 신속처리, 우라늄 비축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었다. 이 영향으로 국내외 원자력 관련기업의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음.

그러나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은 눈앞에 다가온 반면에 신규 발전소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대형 가스터빈은 리드타임이 5 년 이상 벌어졌으며, 원전은 건설 기간만 약 8 년이 소요된다. 미국의 전기요금 상승이 YoY +10%까지 도달해서 공화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전기요금 상승추세 지속



자료: FRED, SK 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관리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5년 09월 29일 기준)

매수	91.72%	중립	8.28%	매도	0.0
----	--------	----	-------	----	-----